

#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제219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충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연(출판국)
- 남형주(재경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시아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상(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6)

우리의 오늘은  
새로운 내일의 시작입니다.

동아의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어제 화정 선생이 품은 신념과 헌신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디어에 커머스를 더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특파원 파견 지역 확대와 수준 높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저변을 넓히고, 협업으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내일의 새로운 동아를 위한 밑거름일 것입니다.

##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사진=편집국 사진부 김재명

2월 23일 경기 남양주시 화도를 금남리 선영에서 열린 화정 선생의 10주기 추모식에서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이 추모집을 봉헌하고 있다.

## 화정, 그 너른 품이 그립습니다

### 화정 선생 10주기 추모식 2월 23일 엄수 200여명 참석... 64명 회고담 추모집 봉헌

화정 김병관 선생의 10주기 추모식이 2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고인의 선영 앞에서 엄수됐다. 전날 소복하게 쌓인 눈으로 온통 하얗게 변한 추모식장과 고인을 떠나보낸 안타까움과 그리움은 10년 전 모습 그대로였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 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인촌기념회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 사회는 화정 선생이 동아일보 회장으로 재임 중 선발한 마지막 공채 기자인 이정은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장이 맡았다.

#### 일생동안 언론자유 창달에 힘써

추모식은 묵념에 이어 최맹호 전 부사장의 화정 선생 약력보고로 진행됐다. 화정 선생은 1934년 7월 24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일민 김삼만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생 동안 자유민주주의 구현과 언론자유 창달, 교육과 문화 진흥, 동북아시아 문화교류와 협력 증진에 크게 공헌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97년 호주의 모나쉬 대학교와 2001년 일본 와세다 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화정 선생은 일민 선생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동아일보 대표이사에 오른 뒤 광화문 미디어센터와 충청로 사옥을 비롯해 오금동, 안산, 대구에 최신식 인쇄공장을 세우는 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집과 제작, 경영시스템을 현대화했다.

또 1993년 신문발행 체계를 석간에서 조각으로 바꾸고 1998년에는 기사편집을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했다. 1990년부터 4년간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맡아 한국 신문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국제신문협회 한국위원회 이사,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동아일보와 한국 언론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또한 화정 선생은 문화예술 분야에

도 열정을 쏟았다. 1990년 창극 아리랑 공연단을 인솔해 중앙아시아 3개국 6개 도시를 순방해 현지 동포의 민족애와 나라 사랑을 고취시켰다. 1999년에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의 후예, 심수관 씨를 초청해 '400년만의 귀향'이라는 주제로 일민 미술관에서 도예전을 열도록 지원했다.

화정 선생은 교육발전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다. 1994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로 선임된데 이어 1999년 11대 이사장을 맡아 고려대와 중앙중·고등학교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평생 교육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01년 온라인 교육기관인 한국디지털대학교(이후 고려사이버대학교로 명칭 변경)를 설립했다.

#### “화정이 뿌려놓은 씨앗 차곡차곡 결실”

약력보고가 끝난 뒤 추모사가 이어졌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이사장은 화정 선생이 발행인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화정 선생의 투철한 신념이 흔들렸더라면 우리는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을지 모른다”고 추모했다.

이어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고려사이버대 설립 등 미래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신 해안도 지금 생각하면 놀랍기만 하다”며 “고려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사

립대학으로서 미래 대학의 모범을 이끌어내고 있는 요즘 화정 선생께 미래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는 고비마다 시대의 나침반이었고, 당신은 험한 항로를 헤쳐 가는 조타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동아방송의 맥을 이은 채널A가 개국 6주년을 맞았고, 동아미디어그룹이 2016년 신방 겸영 언론사 중 매체 합산 여론영향력 1위를 차지한 것은 화정이 뿌려놓은 씨앗이 차곡차곡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화정 선생을 기렸다.

이어 김재호 사장은 각계각층의 64명 인사들이 화정 선생과의 추억을 담은 추모집 〈언론 교육 문화에 바친 열정, 김병관을 생각한다〉를 봉헌했고, 한기홍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이 편찬 과정을 보고했다.

10년 전 영결식에서 고별창을 했던 안숙선 명창은 이날 화정 선생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춘향가의 ‘하루가고’ 대목을 불렀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열흘 가고 한달 가고 달 가고 해가 지낼수록 너의 생각이 뼈 속에 든다...”

참석자들은 하얀 국화로 둘러싸인 화정 선생의 영정 앞에 헌화하며 고개를 숙였다.

남양주=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만난다... 첫 실리콘밸리 특파원 선발

올해 여름부터 신문과 방송에서 본사 특파원이 직접 전하는 실리콘밸리의 파근파근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을 담당할 단기특파원을 신설하고, 지난 1월 말 통합 인재육성위원회에서 보도본부 황규락 기자(산업부)를 초대 특파원으로 선발했다. 종합편성채널 4사 가운데 실리콘밸리에 상주하는 특파원을 파견한 것은 채널A가 처음이다. 황 기자는 7월부터 임기 1년의 신방겸직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워싱턴, 뉴욕 특파원과 ‘미국팀’을 이뤄 중서부 지역의 이슈 취재에도 나



보도본부 산업부 황규락 기자, 편집국 산업1부 서동일 기자, 편집국 사회부 권오혁 기자(왼쪽부터).

설 계획이다.

실리콘밸리는 구글,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첨단 산업의 각축장이자 인공지능(AI), 비트코인,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흐름이 꿈틀대는 ‘핫 플레이스’이다.

올해 3년째 활동에 접어드는 이집트 카이로와 중국 베이징(북·중 접경지역) 단기 특파원 후임에는 동아일보 편집국 서동일 기자(산업1부)와 권오혁 기자(사회부)가 각각 선발됐다. 이들은 박민우, 정동연 특파원의 뒤를 이어 7월 현지에 부임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단기특파원의 활동으로 동아미디어그룹의 글로벌 역량은 한층 향상됐다. 베이징 단기특파원은 북·중 접경 지역의 현장을 취재하면서 한중 관계와 북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파리 특파원과 함께 ‘유럽팀’을 구성하고 있는 카이로 특파원은 아프리카와 중동은 물론 유럽까지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단기특파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을 누빈 결과 동아미디어그룹의 해외취재망은 한층 탄탄해졌고, 이슈를 따라잡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남하나

# “그분의 정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정 선생은 인촌과 일민에 이어 3대에 걸쳐 정통 언론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신문을 사랑했고 교육·문화 분야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화정 선생의 모습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 신문인 화정



① 1989.4.1 사장 겸 발행인 취임식. 화정 선생은 1968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1987년 발행인, 1989년 사장으로 취임했다.

② 1995. 2.24 한국 언론 최초로 중국 리핑 총리와 단독 회견한 화정 선생.

③ 1998. 10.20-27 화정 선생은 한국 신문 경영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금강산 만물상을 배경으로 촬영한 기념사진.



① 2000. 1.1 동아미디어센터의 준공 테이프를 끊으며 동아미디어그룹의 광화문시대가 다시 열렸음을 알리는 화정 선생(왼쪽에서 일곱 번째). ② 1992년 10월 준공한 충청로 사옥. ③ 1997년 6월 준공한 안산 공장.

## 교육인 화정



① 2005.5.5 고려대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화정 선생은 100주년 기념 삼성관, 화정체육관 등을 지어 고려대의 캠퍼스 인프라를 키우고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닦았다.

② 일제의 군사훈련장으로 활용된 대운동장을 없애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변한 고려대 중앙광장.

③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고려사이버대학교.



## 문화인 화정



① 1991.11.18 국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원식 국무총리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화정 선생.

② 1988.5.20 동아국악콩쿠르 입상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화정 선생은 국악을 즐기고 사랑했으며 적극 후원했다.

③ 1990.3.18 화정 선생이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출발을 알리는 신호총을 쓰고 있다.



# ‘한 시대의 거인’, ‘자유와 정의를 굽히지 않은 소신의 언론인’, ‘멋과 풍류를 아는 분’...

## ‘김병관을 생각한다’ 추모집 내용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화정 선생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2월 20일 발행된 화정 선생 추모집 <언론 교육 문화에 바친 열정, 김병관을 생각한다>에는 화정 선생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가득 담겨있다.

화정 선생은 권력의 외압과 외부의 시련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었고, 자신보다 동아일보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 김대중 정권의 세무조사 당시 동아일보 사장으로 재직했던 김학준 전 회장은 “화정 회장은 ‘사장이 나를 살리겠다



화정 선생 추모집 <언론 교육 문화에 바친 열정, 김병관을 생각한다>.

고 영웅한 일을 해서는 안 돼. 논조에 변화가 있어서도 안 돼. 이 일로 동아일보가 변했다는 말이 나와서도 안 돼”라며 정색을 하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2008년 당시 현역 대통령의 신분으로 빈소를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화정 선생은 평소 과묵하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옳다고 판단한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행동에 나섰다”고 회고했다.

권력 앞에는 당당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정을 보여줬다. 최명호 전 부사장은 “(수술로 음성을 잃으신 화정 선생께서) 2007년 12월 30일 일민미술관 사무실에서 점심으로 배달된 메밀국수 절반을 덜어 주시면서 종이 에 ‘고생이 많았다’고 적으시고 나를 바라보셨다”고 회상했다.

화정 선생은 미래를 내다본 혜안으로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발전을 이끌었다.

1993년 4월 1일 동아일보 조간 전환 업무 실무를 맡았던 정구중 전 편집국장은 “동아일보의 조간화 전환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화정의 혜안과 독심으로 실현된 대개혁”이라고 말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언론사업에서는 물론이고 고려대 이사장으로서 학원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눈앞의 이해관계보다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보곤 했던 인물”이라고 회고했다.

화정 선생은 국악 진흥을 이유로 국민훈장 무궁화장(1991년)을 받았을 만큼 누구보다도 문화·예술을 사랑했다. 안숙선 국악인은 “화정 선생은 국악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남다른 분이셨다. 만약에 지금도 생존해 계신다면 국악계

를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추모집 제작에는 총 64명의 내외부 인사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임채청 부사장이 화정추모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표를 맡았고 이현락 전 주필, 정구중 전 편집국장, 최명호 전 부사장, 한진수 전 2020위원회 위원장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또 한기흥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김수곤 동아E&D 대표, 강수진 편집국 부국장, 이광표 논설위원은 실무담당자로서 추모집 작성에 힘을 보탰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손영일

# 평창에서 빛난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금메달감 이네요”

### 동아일보-채널A-스포츠동아, 일심동체로 마감 사수 디지털뉴스팀은 콘텐츠 가공으로 힘 보태 진가 발휘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동아미디어그룹의 취재역량은 또 한번 빛을 발휘했다. 정확한 경기분석과 타사와 차별화된 다양한 아이টে็ม으로 대히트기간 내내 ‘역시 스포츠도 동아’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 일보와 채널A, 스포츠동아의 찰떡 공조가 있었기에 피 말리는 돌발 마감상황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다.

#### 돌발 상황에서 빛난 협업

2월 22일은 남녀 쇼트트랙에서 총 3개의 금메달이 기대되던 날이었다. 준결승전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다. 이날 오전 8시 반 강릉에서 회의를 열고 발제를 올릴 때만 해도 ‘골든 데이’가 한순간에 ‘파당 데이’로 바뀌는 참담한 결과가 나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8시 이후 본격적으로 각 종목 결승전이 열리면서 이변이 시작됐다.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쌍두마차 최민정(20) 심석희(21)가 함께 미끄러졌다. 곧이어 진행된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임효준(22)이 기대를 저버리고 넘어지는 바람에 메달을 놓쳤다. 남자 500m에서도 금은 없었다. ‘금3’이 ‘금0’이 된 순간, 강릉아이스아레나 취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메달을 예상하던 동아일보 취재진은

서둘러 기사 방향을 틀었다. 마감을 코앞에 두고 “왜 넘어졌나?” 등 분석 기사를 새로 출고해야했다. 넘어질 당시의 장면 또한 세세하게 스케치해야 했다. 40판 마감까지는 30분도 채 남지 않았고,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믹스트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 믹스트존 취재를 맡고 있던 동아일보 김배중 박은서 기자가 동분서주했지만 손이 부족했다. 이때 채널A 유재영 기자가 힘을 보탤었다. 전이경 해설위원의 멘트를 받아 토스했다.

이후 수시로 서로 전화나 메신저로 소통하며 선수들의 동선이나 코치진의 반응을 살폈다. 1분 1초가 아쉬웠던 순간에 동아일보와 채널A는 한 몸처럼 움직였고, 마감 시간을 사수할 수 있었다.

#### 정보 공유하며 취재 현장의 한계 극복

평창동계올림픽의 이동 수단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등록된 버스가 전부였다. 경기장은 대부분 20~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간신히 믹스트존에 자리를 잡아도 각국에서 몰려든 취재진 탓에 멘트 하나를 받으려면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평창은 넓고 북새통이었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채널A, 스포츠동아는 각자 취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취재 현장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① 채널A 현장 스튜디오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특별취재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②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편집국 스포츠부 강홍구 기자. ③ (뉴스A)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④ 사진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 김종원 스포츠동아 기자.

사진 기자와 카메라 기자 간의 정보 공유도 활발했다. 경기장에 먼저 도착한 기자는 뒤에 오는 기자에게 적당한 촬영 스폿을 귀띔했다. 주요 선수나 가족, 유명 인사의 예상 동선을 서로 알려주며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었다. 평소 소속에 상관없이 선후배로 가깝게 지내며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선 디지털부서의 후방지원도 돋보였다. 디지털뉴스팀은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페이지(가자! 평창으로)를 만들어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현장 기사를 돋보이게 배열해 주목도를 높였다. 평창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출고하면 동아일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독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현장 기사를 가공

해 카드뉴스를 만드는 등 젊은 층을 사로잡을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힘썼다. ‘동아’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취재 경험은 앞으로 열릴 굵직한 스포츠대회에서도 소중한 경험이 되리라 확신한다. 6월 러시아월드컵과 8월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평창=편집국 스포츠부 김재형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채널A 예능 새단장

### 고품격 영화토크쇼 ‘천만홀릭, 커밍쑈’ 방영... ‘하트시그널 시즌2’는 16일 첫 방송



2월 23일 첫 방송된 영화 예능 프로그램 <천만홀릭, 커밍쑈>에서 MC들과 영화 <게이트>의 주연 배우들이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3월 16일 첫 방송되는 <하트시그널 시즌2> 포스터(오른쪽).

시청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채널A 신규 예능 프로그램들이 안방에 찾아온다. 2월 23일 오후 9시 반 첫 방송된 <천만홀릭, 커밍쑈>(이하 <커밍쑈>)은 ‘안방극장에서 보는 시사토크’를 콘셉트로 내세우며 개봉을 앞둔 영화의 주연 배우와 감독이 출연해 깊이 있는 영화 토크를 선보였다. 개그맨 신동엽, 가수 은지원, 배우 김기방, 가수 경리, 영화감독 이원석이 MC로 뭉쳐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첫 방송에는 영화 <게이트>의 배우 정려원 임창정 정성훈이 출연했다. 이들은

영화 내용뿐 아니라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연기 인생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 청춘들을 설레게 했던 러브라인 추리게임 <하트시그널>은 시즌2 촬영을 마치고 3월 1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시즌2는 ‘눈꽃 멜로’를 테마로 잡아 순백의 겨울을 배경으로 한 도시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시즌1에서 ‘연예인 추리 군단’으로 활약했던 윤종신, 이상민, 김이나, 양재웅 등이 그대로 출연하고 걸그룹 씨스타 출신 소유와 래퍼 윈이 새롭

게 합류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새 시그널 하우스에 입주할 출연진 모집공고가 올라오자 하루 만에 댓글 1만 여개가 달리는 등 시청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2월 9일 페이스북에 공개된 첫 번째 티저 영상은 조회수 68만을 기록했으며, “벌써 연애하고 싶다” “무조건 본방사수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이 담긴 4만8000여개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편성본부 콘텐츠평생전략팀 윤송이

## ‘개밥주는 남자’ 1호 기획상품 탄생 채널A, 미디어커머스 영역 개척 앞장

### 합성보존료-항미제 첨가안해 믿고 먹일 수 있어

채널A가 인기 예능프로그램 <개밥 주는 남자 시즌2>와 연계된 프리미엄 펫 브랜드 ‘굿밸런스’를 론칭했다. 미디어와 커머스 사이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시청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부가수익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굿밸런스’ 제1호 기획 상품’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급 반려견 사료. 채널A는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협업해 <개밥 주는 남자 시즌2>에 출연 중인 최현석 셰프와 반려견 푸이를 모델로 한 프리미엄급 반려견 사료를 1월말 출시했다.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등급인 ‘휴먼그레이드(human grade)급’ 원료만

100% 사용했으며 합성보존료나 항미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았다. 강아지용 1종, 성견용 3종, 노령견용 2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된 선택의 폭도 넓다. 개밥 주는 남자 사료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및 홈플러스 온라인마트, 채널A가 운영하는 미디어커머스 쇼핑몰 ‘오티티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채널A는 이와 함께 애견 간식, 배변패드 등 ‘굿밸런스’ 후속 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해 미디어커머스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 박석희



<개밥 주는 남자 시즌2>에 출연 중인 최현석 셰프와 반려견 푸이가 프리미엄급 반려견 사료 모델로 나섰다.

# “비즈니스 환경 급변... DBR이 새 길 찾는 나침반”

### 명품 비즈니스 잡지 DBR 창간 10주년 세미나-기념호 발행 DBR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 대표적 성공사례



DBR 창간 10주년 기념호

국내 최고의 경영전문 매거진 동아비즈니스리뷰(DBR)가 3월 1일 창간 10주년 기념호를 발행했다. 2008년 1월부터 매월 두 차례씩 쉬지 않고 걸어온 성과다. 지난 10년간 DBR은 잡지를 기본으로 그 위에 기업교육과 포럼, 멀티미디어 사업을 벌여나가며 안정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DBR을 발행하는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달 8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신연수 미래전략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좀더 넓게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과감한 혁신을 하는데 DBR이 나침반이 되고, 지침서가 됐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밝혔다.

DBR은 최신 경영 트렌드는 물론이

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기업 경영의 본질을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까지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막 발을 내딛은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DBR을 꾸준히 열독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유한킴벌리 최규복 사장은 DBR에서 얻은 지식으로 실제 사업에 도움이 된 사례를 소개해 눈길

을 끌었다. 그는 ‘공유가치 창출’을 다룬 DBR 96호(2012년 1월 발간) 덕분에 유한킴벌리가 ‘액티브 시니어(5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를 고용하는 전략으로 기업의 이윤도 챙기면서 사회에 대한 공헌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광화문 구굴’ 만든 선진적 조직문화

DBR은 동아미디어그룹의 사내 벤처 프로그램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DBR은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봤던 잡지 시장에서, 심지어 이전까지 국내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형태의 프리미엄 경영 매거진을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사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개성과

역량을 지닌 인재들을 선발했다. 표지 전면에 제호를 제외한 글자를 없애고 1개의 예술작품만으로 채운다든가, 기사 내용으로 5분짜리 기업교육 동영상 만드는 등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시도가 이어졌다.

또 DBR은 편집국 등 다른 부서와의 순환근무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 내 시너지를 창출해냈다. 그 결과 전 직원이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됐다. 프로답게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부여받는 문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 근무제, 학업을 장려하는 학구적 분위기 등 ‘광화문 구굴’이라는 별칭에 어울리는 선진 기업문화를 앞장서 도입하고 있다.

미래전략연구소 경영지식팀 조진서

## ‘콘텐츠 크리에이터’ 동아E&D 창립 10주년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있는 동아E&D 임직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동아미디어그룹의 콘텐츠에 세련미를 더해왔던 동아E&D가 2월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그간 동아E&D는 동아일보 지면 편집에 참여하면서 각종 기획섹션과 헬스동아 제작을 담당해 왔다. 문화사업본부와 미디어랩A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홍보물 디자인도 동아E&D의 손을 거쳤다. 동아E&D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모든 디자인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역량을 키워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향의 월간지 ‘SPO’와 서울특별시체육회 소식지 ‘서울스포츠’ 등 외부 디자인 및 제작용역 수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동아E&D는 앞으로 출판기획 부문까지 진출해 동아미디어그룹이 생산하는 출판물의 유통배급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미디어그룹의 소중한 콘텐츠가 1회용으로 그치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 패키징과 디자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아E&D 디자인기획팀 유진민



2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DBR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DBR 독자와 기업 HR 담당자 등 200여 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조직 역량 개선 방안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 방탄 코어 근육 만들기



우리 몸은 600여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은 30대 전후부터 빠지기 시작해 매년 1%씩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충분한 30대부터 미리 근육 감소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몸신’에서는 골반과 척추를 지지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지키는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 다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그런 다음 얼굴을 들고 팔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동작을 할 때 머리를 숙이면 척추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머리를 든 채로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체를 그대로 들면서 팔을 벌려 줍니다. 빠르게 일어날 경우 근육의 수축이 풀릴 수 있으므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운동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성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노수아



① 어깨 넓이의 보폭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② 얼굴을 든 채로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③ 팔을 뒤로 밀어주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요추 부분에 자극이 올 때 멈춥니다.



④ 다시 팔을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15회씩 3세트 반복.

## “대외활동 신청 어렵지 않아요~” Q&A로 정리한 대외활동 신청

동아미디어그룹 임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대외활동 허가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문의도 늘고 있다. 대외활동허가 신청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Q 대외활동허가원 신청 시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가.**  
A 평사원은 소속 국/실/본부장까지, 논설위원 및 부국장 이상 직책간부는 사장까지다.  
\* 편집국 평가자: 차장 - 부장 - 부국장 - 국장 / 논설위원: 논설위원실장 - 논설주간 - 사장
- Q 대외활동허가원으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가.**  
A 그렇다. 결제 과정에서 외부강의 등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검토한다. 원활한 결재를 위해 사전에 직무관련성 및 대가를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 Q 별도의 사례금 없는 경우도 대외활동허가원을 신청해야 하는가.**  
A 대외활동은 사례금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Q 저작물의 출판과 관련해서도 대외활동허가원을 신청해야 하는가.**  
A 저작물 출판은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출판 저작물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Q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대외활동허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사전에 대외활동허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지 못한 경우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Q 사외파견 중인 경우 대외활동허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A 사외파견사원은 현재 근무 중인 사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Q 겸직인 경우, 대외활동허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A 계열사 겸직사원은 소속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회사 담당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 Q 동일 정규교육기관에서 연속으로 2학기 강의를 할 경우, 한 번만 신청해도 되는가.**  
A 동일 과목일지라도 대상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허가를 받았어도 기간 만료 후 활동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지원국 인사팀 김여울